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고려거란전쟁과 실증사학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방영 초기부터 역사왜곡 논쟁에 휘말렸다. 고려 북방 국경선을 지금의 함경도 남쪽까지 축소했다는 것이다.

사, 지리지 동계)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사의 '공험'을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함경남도 이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사는 백두산 동북쪽 공험진 선춘령에 운관 장군이 고려 강역이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교과서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백두산 동북쪽'을 백두산 남쪽 1천여 리의 함경남도 안변으로 표시하고 있다.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이라는 사실은 조선의 국가기관이나 학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두만강 경원에서 공험진까지 북쪽으로 정확히 688리라고 적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역사의 신'으로 떠받드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보면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실증사학'에 대해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인 방법을 중시하는 역사학'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증사학은 19세기 말부터, 특히 일제 시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현실과 '진실'을 깨닫고 그동안 역사관을 시정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이 내는 수신훈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예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정현호 보라안과병원 원장

행복은 현재에 있음을 알려준 환자

잠시,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면서 일하던 대학병원 전공의 1년차 여름이었다. 당시 잠이 부족하여 비몽사몽하며 응급실 당직을 하고 있었는데 열 살짜리 여자가 이가 눈을 다쳐 응급실을 찾아왔다.

한 눈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 채 아파도 묵묵히 참아냈던 아이, 전공의 1년차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내가 의사로서 책임감을 넘어 처음으로 환자에게 감정을 이입했던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군의관 복무 3년 후 다시 망막 전염감자로 대학병원으로 복귀하였다. 또 다시 바쁜 나날의 연속에서 우연히 보게 된 차트에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는, 이제는 훌쩍 커고 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 분명했다.

주치의였는데, 기억하니?" 그러자 아이는 기억한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밝고 씩씩하게 웃었다.

"씹씹하게 잘 키워서 고마워.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게. 너를 빛나게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항상 행복하렴."

흔히 의사는 환자를 통해 배운다고 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쌓는 경험과 지식 가치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지만, 내가 만난 환자가 나에게 보여 준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력 저하, 특히 시각장애 환자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등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망막 전문의로서 더 많이 만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때때로 그분들의 불행함에 무뎠게 지는 나를 보며 반성하기도 한다.

오늘도 나는 내가 만나는 환자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현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기고



문중국 선안문등산학교장

다시 시작하는 도전

을 위한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만 원정의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점점 편한 것만 추구하며 갈수록 낙약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시대정신의 전환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가장 실현성 있는 처방 중 하나가 산악 등반을 통한 도전정신의 함양이 아닌가 생각한다.

1976년 창립을 올해로 47주년이 되는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이하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세계적 알피니즘 전통을 계승한 산악회이다. 학교 동아리의 하나로써 재학생일 때 등산의 기초를 배운다.

1990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낭기파르바트(8125m)에서 정성백 대원을 잃은 조선이공대 산악회는 한 번도 꾸리가 힘들다는 8000m봉 원정을 세 번(1992년·1997년·2005년) 도전하는 한국 등산사의 진기록을 세웠다.

대가 꾸려졌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가물 가물한 원정보고서 발간과 원정보고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조선이공대 산악회의 지난 11일 '조선이공대학교 개교 60주년 2023 레닌피크(7134m) 원정보고서 발간 기념회 및 원정대 보고회'가 주인공이다.

장창수 원정대장은 보고회의 총평 말미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아닌 산악회 차원에서 '스노우 레오파드'(Snow Leopard·구 소련 7000m 이상 5개 봉의 별칭) 완등을 목표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것 같다"면서 다음 원정 대상지로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도전하는 코르제네프스카야 봉(Korzhenevskaya·7150m) 원정을 제안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된 알피니즘이 대가 끊기는 실전(失傳)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조선이공대 산악회의 이러한 전통적 알피니즘 추구 행위는 잡자고 있는 우리만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며 시의적절하다.

社說

광주에 세계적 수준 국가 AI 데이터센터 가동

광주시에 언제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가AI데이터센터'(이하 센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센터는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 내 핵심시설로, 연면적 3144㎡의 2층 규모다.

광주시는 특히 엔터테인먼트가 자랑하는 최고 성능의 GPU(그래픽처리장치)인 'H100'을 센터에 구축했다. 기업들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상용화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어업철 수요 맞춰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어업인에게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겨울철 '어번기(漁繁期)'를 맞아 전남 어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어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남 지자체는 연안 시·군 16곳 중 고흥·해남 등 7곳이지만 올해 상반기 배정된 어가는 471개 였던 반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어가는 35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매년 상반기(11월)와 하반기(5월)로 나눠 두 차례 배정심사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교육 등 수속 절차를 거쳐 배치하

켓GPT 같은 생성형 AI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초거대 AI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구축 비용 때문에 빅테크 기업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광주시가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지역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떤 첨단기술보다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그런 만큼 지자체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시가 일찌감치 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센터 서비스를 계기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국내 유망 AI 기업들이 광주로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더 많은 관련 기업이 광주에 터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업 특성상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덩이다.

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고용 기간을 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확대·운영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전문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인력에도 시달리는 어민들은 별급형을 감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는 실정이다. 겨울철에 고용할 인력을 여름철에 미리 잡아두면서 재우고, 먹고, 월급까지 주고 있어 형편적 부담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업의 특성상 적시여 일손을 구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 현실의 부조화가 큰 만큼 행정당국은 농어업인의 고심과 손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의 핫 플레이스 동명동을 찾을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한다. 멋들어진 카페나 맛집은 눈에 띄지만 문화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1983년 문을 연 금호문화회관은 2001년 문을 닫을 때까지 광주 문화의 요람이었다. 한옥을 차용한 건물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풍겼던 이곳에선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렸다.

당초 회전기공 소유였던 금호문화회관 건물은 호화주택에 걸려 입주가 불가능했다. 지방 청야대로 팔려 했지만 주택가에 위치, 경비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았고 아파트 업자에게 팔려 헐릴 위기에 처하자 금호가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김민기 대표의 암 진단으로 33년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에 갈 때면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 등 많은 작품을 봤던 터라 폐관 소식에 옛 추억들이 떠올랐다.

88년 역사의 광주극장에 서 활영했다. 최고은, 아마도이자람 밴드 등 유서 선들이 광주극장의 영사 팬이었던 친구와 '일어나라 알버트'를 보고 감동에 빠졌던 일이나 손성권의 '빨간 피터의 고백'을 관람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실, 대표실 등에서 노래하며 영화와 바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관람 내내 경제논리에 밀려 60년 역사를 뒤로하고 최근 철거된 원주야카데미극장이 떠올라 더 애뜻했고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로벤'처럼 버티고 있는 또 다른 공간들도 생각났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